

설명절 예배문

사도 신경

다 같이

찬 송

559장(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 표 기도

말 은 이

성 경 봉 독

에베소서 5:8-14(신약 315쪽)

인 도 자

-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설 교 말 씀

인 도 자

할렐루야!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설 명절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깨닫고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새롭게 변화되려는 의지가 총만 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 대해 어둠과 빛의 자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의 본질은 그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치에 소망을 두는 삶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으니, 우리는 곧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어둠과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본성을 지닌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사랑, 그리고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 그 빛이 내 영혼을 비추면 내 안의 어둠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 본성에 따라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에 대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시대에 만연하게 행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곧 일상화된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들, 불의하고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에 한 번 가까이하게 되면 끊어낼 수없이 깊어집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리를 피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단절되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 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어둠의 일을 완전히 끊어내고 빛에 속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앞드려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착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2025

설명절 감사예배

공의를 뜻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거짓과 위선과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 삶 전반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가족과 이웃, 동료들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성품을 넉넉히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비추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은 어둠을 비추입니다. 어둠이 있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죄에 경계선 없이 모호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숨기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그를 온화하게 대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닌 세상의 어둠을 빛 되신 주 앞에 드러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모인 우리 가정이 세상에 주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열매 맺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증거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 송 304장(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갈 이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 기도 문

다 갈 이